

주일에배
오전 9시 10분부터 7시 30분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 방송국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9시 10분부터 7시 30분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연천시 서구 가좌동 47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4월 20일 (제738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거리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32-9191 (인천) 연천시 서구 가좌동 47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에 배정된 인터넷 생방송)



부우칼럼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이!

5월 20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하여 장성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했다. 그런데 나는 기도 중에 이 성회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기를 원하신다. 저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코자 하신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다시 북한 땅에 일어나 평양이 다시 한 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빛을 발하게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일 뿐, 모든 것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기도 중에 깨달았다. 부활절을 맞아 생각이 깊다. 부활은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다. 이를 모두 함께 누리야 한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 찬 북한 땅에도 당연히 비추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 저 천의 장막이 무너지고 저 땅에 부활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땅도 적시기를, 죽어있는 저들의 영혼이 부활하기를, 그래서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사탄의 꽃이 만발하기를, 부활절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동방의 작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현대하심을 믿는다.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이루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곧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시다. 그것이 우리 교단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자각하고,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을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영적 대청소

열정은 자석과 같다. 열정이 강하면 강철수축 그 자성(磁性)은 더욱 강하여 사람들은 그 열정에 끌려간다. 더구나 그가 보여주는 열정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공감대를 살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흡인력은 더욱 커진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자신의 열정을 불사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강력한 자성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열정에는 분명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또한 루이스 목사의 자성에 끌려 베네수엘라를 인방처럼 드나들고 제신 셈이다. 2010년 집회 이후 루이스 목사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고 있으니 말이다. 교회 건축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루이스 목사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다. 지난 1월 집회 때와 동일한 메시지로 발과 생각을 초 공경마인드로 개조하는 영적 대청소였다. '여기 올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성회를 시작으로 월드컵 경기장, 판문각, 나아가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하곤 그가 장로 할 바리바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안 된다는 사람과 대담을 논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또한 전염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 하나님에 도우신다, 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루이스 목사 교회 주일에배 광경

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하여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목숨까지 담보하는 열정이라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강력한 자성을 띄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신과 열정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다 그러하겠으나 지금거리에서 20년 이상 지켜본 루이스 목사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 목사님은 부와 명예의 상층드라이브를 질 수 있는 나이에 예수를 만났고, 그 한 번의 만남은 목사님의 삶 전체를 예수께 물인하는 열정을 낳았다. 그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활활 불타올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70개국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자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루이스(Luis) 목사는 목사님의 그 자성에 이끌려 한국까지 달려온 인물이다. 베네수엘라(Venezuela)를 건너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꿨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왜 카라카스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왜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체쳐두고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농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안 된다는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오는 5월 20일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성회를 정부와 언론이 돕는다는 겁니다. 원근각처에서 기도하기 원

념이 함께 하신다는 초 긍정적인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명작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요. 말은 곧 예술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바꾸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루이스 목사와 그레고리(Gregory) 목사 모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목사님이 연속으로 우리 교인들을 영적으로 대청소해주신다며 사의를 표했다. 루이스 목사 교인들도 모두가 환한 얼굴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다함께 단에 올라와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천상의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였다. (다음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any8829@naver.com



집회 후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레고리 목사



집회에 왔던 노파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다



예배 중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4:7~8)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經綸)을 아십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지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창33:2).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에 있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당신의 경륜을 범추지도 바꾸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른 자를 통해 계속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면 다윗을 통해, 가룟 유다가 배신하자 맛디아를 12사도로 세워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백성 받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복음이 사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저지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제2의 마리아를 택해 당신의 경륜을 이루셨을 겁니다. 언젠가 내가 꿈에 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꿈에 내가 너무 지쳐 누워 있으니가 주님이 저더러 '너 아니면 사람이 없나?' 라고 말씀하신 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지 않으면 마른 막대를 들어서라도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백정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이고, 순종하는 자는 더욱 복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테르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마귀도 일한다

에스테르가 이로 인하여 고민하자 모르드개가 에스테르에게 딱 한 마디 던집니다.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놀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에4:14). 무슨 말입니까? '에스테르, 네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는 게 네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 교단을 빌알로 백정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 교단이 이 일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통일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교단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어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기만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기습하여 곡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인들을 피하여 몰래 숨어서 밭을 타작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병을 내리셨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은 놀라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삿6:13-15)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마디로 '왜 저니까?' 농락하는 다른 자에게 말걸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는 약속을 주심으로

지극히 작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교단이 많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도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성교단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처지에서 온신의 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 기드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 에루살렘 교단을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사람과 과부 하나였겠습니까만, 엘리야 시대에 문둥병을 앓던 자가 나아만 하나였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듯, 우리 교단을 택하신은 전적인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드온에게 주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것처럼, 우리 교단만으로도 서늘시공장을

채우고, 그 기도소리로 하늘을 뚫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성회를 개최함에 있어 벌써부터 비웃는 소리, 방해세력이 있는데, 어찌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그 마귀의 방해공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때 마귀의 방해가 일

마나 거셨습니까? 바로가 그랬고요. 아말렉을 비롯한 외부세력은 물론이요, 12지파 중 10지파

를 월 어십 오일에 끝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어방 사람들이 어를 들고 다 무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으리라' (느6:15~16).

'너희가 기도한다고 평화통일이 되나?'. '이초석 목사가 자기 공백라고 하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 굴러가고 있다

는 거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걱정도, 현혹도 되지 마십시오. 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 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드렸느냐를 보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게 하심은, 복음통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라 하신 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게 부르짖은 고로' (삿6:7)이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하신 이유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출3:7)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한 통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에 우리 교단으로 하여금 이 거룩적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아를 지날 때 동물을 쫓던 권 족속을 400년 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일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방해한 아말렉 족속은 진멸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마귀도 일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만입니다. 조금도 두려워 말고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실 것이고, 후손에 이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합력 루어!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MS 1530000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번호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비밀주: 예수종교교회

::객원칼럼::

::비유열전::

투명성

미국의 갭, 리미티드 그룹 등 프랜차이즈형의 유통업체(SPA)들은 영국 최대의 소비재 유통회사인 막스앤스펜서(M&S)의 생산 및 품질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즉 M&S는 유통을, 공급업체는 생산에 대하여 완벽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13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조사대상 148개국 중 91위라고 합니다. 조사방식은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상장법인의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가 상장회사 중 투자 유의 업체, 그리고 신규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를 전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이자 피감법인(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반드시 조속하게 입법이 되어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한국의 회계감사 관련규정 및 법규는 여

타국가보다 보수적이며 공인회계사의 자질은 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피감법인인 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율선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들은 피감법인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가 제출되곤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제당국은 각 대상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만 아니라 피감법인은 의무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보수금액(報酬金額)을 지정제도에 예치하여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대금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고, 둘째, 일부 민감한 자산계정, 보증채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리 수준으로 검토하여 잠재손실 및 위험성이 본 계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면, 초기단계에는 심한 반발이 있을 것이나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되어 시장에서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일본이나 여타의 선진경제대국도 주주하면 부가가치세제 및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을 때,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현재의 성공적인 안착이 경제발전에서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 30년의 시간 중 단 하루도 위기가 아닌 상황이 없었으나 '공격면이 최선의 방어'이고, '큰 자가 되길 전 깨닫한 자 되라'는 원칙하에, 단 한 명으로 시작한 교회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단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임윤석

부활(復活)

어느 크리스천이 한 회교도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회교도는 대답하였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자, 회교도도 뒤질세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회교도 역시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말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회교도 역시 바로 대

꾸했다. "우리는 마호메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을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기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자 회교도는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15:20~22).

예수중심점집



나는 부활의 요성명이나 너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11:25

::청정예사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들아!

이런 가정을 한 번 해보자꾸나. 내가 만일 어떤 이유로 초청을 받아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자. 대통령 초청을 받은 네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볼까? 아마 들뜨고 기뻐서 자기 전까지 밤도 제대로 못 먹을 거고, 잠도 설칠 거다. 또 아는 사람에게 모조리 이 사실을 알리느라 바쁠 거야. 그리고는 생각하겠지. '무엇을 입고 갈까. 점잖은 자리니까 넥타이를 매어야겠지. 근데 마땅한 게 있나? 신발은 미리 공백을 내어두고...' 이렇게 난리부산을 열 거다. 또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 하며 너를 상상의 나라로 퍼질지. 너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다. 하긴 예식장에 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살짝 긴장도 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쫓긋 세울 거다. 아마 열심히 메모도 하겠지.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을 보러 갈 때 너의 모습은 어떠한?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와 어떻게 다르나? 대통령은 한 나라의 단기 통치자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만국

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단다. 하나님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지. 대충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주일에만 왔다가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배 시간에 몰 마시려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탕도 먹고, 전화도 하고, 더는 좋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고 하지, 나는 단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한단다. 대통령이 말씀하는데 좋고 때 묻고 사탕 먹어봐라. 어떻게 될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어려지지 않을까? '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15:9.

아들아!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은 성공해야 한단다. 세상 모든 것은 실패해도 예배만은 성공해야 한다.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에 바로 그 분 손에 있으니까. 예배는 예

절 예(禮)와 절할 배(拜)자로 이루어져 있잖니. 최고의 예의를 갖춰 그 분께 절하는 것이 예배란다.

왜 하나님에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했는지 아니?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란단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살았느니라'(히 11:4).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4:23).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진정 부활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부활이란단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보는 자세가 부활해야 할 게야. 그러면 모든 것이 부활할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 종파와 사아비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90년대를 풍미했던 한 인기가수가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여 과대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자칭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대략 4~5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몇 조화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이 이미 사망했거나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신 고난을 받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속지 맙시다.

신석우 전도사

blschr@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생각예를시다::

부활의 조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오히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마16:24-25). 이는 예수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의 무게에 따라 부활의 기쁨도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경을 보면 역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이 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목에 우연찮게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실 때 병정들에 의해 명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역지로 지게 했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표정과 행동이 참으로 억울함 그 자체였다. 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자들에게 의하면 예수님이 지셨을 십자가의 무게가 약 60kg정도였다고 하니 '내가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고 어깨에는 깊은

방이 들었음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 그가 변해되고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다시 등장하지는 않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루포'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지로 지고가는 십자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신앙의 명문가로 거듭나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위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은 채찍에 맞아 아픈 것이 아니라 채찍을 때리는 자들의 무지함이 아프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의 자손이 열려져서 그들을 위해 물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수준의 것이었다. 역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면 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나 되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에 동참한다면 과연 어떤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까? 오는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구레네 시몬처럼 역지로라도 좋다. 아니,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분의 수준이 되어 기도와 헌신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남북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는 고난과 열망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탄의 조종을 무력화 시키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와 동참이 어찌 평화 통일의 꽃을 활짝 피어날 것을 확신한다!

하인영

renming@daum.net

어린양을 찬미함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의인으로 변화된 다음 용서를 받은 게 아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어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얻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의(義)는 '사실(事實)'이 아니라 '인정(認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사실보다 더 무겁다. 세상에서는 사실이 있는 다음에야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거꾸로 행하셨다. 사실이 있기 전에 사랑의 믿음을 의(義)로 인정하신 것이다. 이아탈로 하나님이 열여놓으신 인간존재의 새로운 지평이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1-12).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5:21).

놀라운 선언이 아닌가? 이 말대로라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며 '하나님의 의(義)'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로 열렬했던 애가다. 내가 영광의 찬송이며 '하나님의 의(義)'라니!

그러나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한다(요일3:9). 패배감과 죄의식은 내버려야 한다.

창의로부터 시작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인정은 사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義)이다. 더 이상 불만 해하지 말고 이 새로운 전제(前提)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놓으라.

산기류목사

dbba7777@naver.com

Good News

백과사전에는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동서양 사상세계의 기반을 세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가 세계 4대 성인(聖人)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대신 아슬랑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마호메트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여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습니다.

성인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

결하려고 설산에서 고행을 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다가 대장장이가 대접한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복통으로 고생하다 8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 공자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에 대한 제자의 질문에 "살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반문하며 74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혀서 도망갈 기회가 있었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70세에 죽었습니다.

어는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종교나 사상을 창시한 다른 성인들의 태어나고 죽은 날은 기념하고 추모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여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현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천 식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경우,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 숨 쉴 때 책백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2.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잠을 깨는 일이 있는가?
3. 운동 후에 책백거리는 소리나 기침이 나는가?
4. 특정 자극에 의해 숨이 차거나 책백거리는 소리가 생기는가?
5. 감기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 비해 증상이 심하고 오래 가는가?

천식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환경적인 요인인 집먼지 진드기나 동물털, 바퀴벌레, 꽃가루, 곰팡이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기도의 염증이 기도를 과민하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책백거리는 소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천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천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천식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환경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천식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바이러스 감염, 대기오염, 약제,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폭독한 대처법으로 1. 매트리스나 베개를 비누와 성 약제로 감싸거나 어불과 베개를 자주 60도의 물로 세탁하기, 집안의 카펫 제거하기, HEPA필터와 어중백이 내장된 진공청소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다. 2. 천식 환자의 경우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지 않는 편이다. 3. 대기오염은 천식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공해가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한다. 4. 일부 약제들,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약제에 반응을 보인 병력이 있다면 복용하면 안 된다. 5. 반드시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피해야 한다. 6. 스트레스도 천식을

악화시키고 과호흡 및 저산소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7.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야 하고, 실외운동은 하지 말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자. 일주일에 2~5개의 사과는 천식 위험도를 32% 감소시키고, 당근은 비타민 A가 운동 유발성 천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아마씨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많아 기관지 근육을 이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커피도 천식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4시간 정도 기도 기능을 개선시킨다. 이 외에 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깨끗한 공기 유지, 꾸준한 운동, 산화방지제가 풍부한 음식 먹기, 체매 독감주사 맞기, 65세 이상이면 폐렴구균 백신 맞기 등을 권한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이초석목사 춘계산상집회

4월 28일(월) ~ 5월 1일(목)

장성에루스뎀기도원

문의

1600-0688
02-533-9191